

- ♣ Granger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 회귀분석에서 원인변수(독립변수)와 결과변수(종속변수)에 대한 문제는 경제이론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함수관계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음.
 -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시차분포모형(distributed lag model)을 이용하여 원인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검정방법이 인 과관계 검정(causality test)으로 그랜저(C.W.J. Granger, 1969) 에 의해 개발됨.
 - · 시차분포모형이란 회귀모형이 설명변수의 현재 관측값은 물론 과거의 관측값까지 포함하고 있는 설명변수들로 정의 된 경우의 모형을 말함.

$$y_t = \alpha + \beta_0 x_t + \beta_1 x_{t-1} + \beta_2 x_{t-2} + \cdots + \beta_n x_{t-n} + \varepsilon_t$$



- ♣ Granger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 예를 들어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 이전에 일어났다면 A가 B 의 원인이라고 파악할 수 있지만 반드시 B가 A를 유발시켰다고 할 수는 없음(→ post hoc fallacy).
 - · 이를 다시 표현하면 과거의 사건은 현재의 사건을 유발할 수 있지만 미래의 사건은 현재의 사건을 유발할 수는 없다는 것임.
 - ·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Granger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이라 함.
 - 자세한 내용은 Damondar N. Gujarati & Dawn C. Porter, Basic Econometrics, 5th ed., 제17장 참조.



- ♣ Granger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은 전통적인 F-통계량을 이용한 비교적 단순한 검정방법임.
 - · Granger의 정의에 의하면 y를 예측(추정)할 때 y의 과거값 과 함께 x의 과거값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y의 과거값만으로 예측(추정)하는 것보다 정확하면 x로부터 y로의 인과방향이 존재한다고 간주함.
 - 마찬가지로 x의 예측(추정)이 자신의 과거값에 의존하는 것 보다 y의 과거값이 포함됨으로써 x의 과거값만으로 예측 (추정)하는 것보다 정확하면 y로부터 x로의 인과방향이 존 재한다고 간주함.
 - 만일 이러한 인과관계가 두 방향으로 모두 성립되면 x와 y
 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쌍방의 인과방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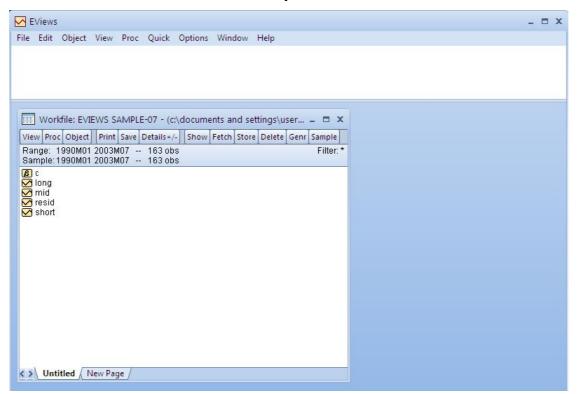
- ♣ Granger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H₀)에 대해 검정하는 것 을 말함.
 - · Granger 인과관계 검정에 대한 모형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회귀모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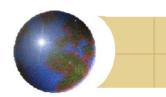
$$\begin{aligned} y_t &= \Sigma_{i=1 \rightarrow p} \alpha_i x_{t-i} + \Sigma_{j=1 \rightarrow p} \beta_j y_{t-j} + \epsilon_{1t} \\ x_t &= \Sigma_{i=1 \rightarrow n} \gamma_i x_{t-i} + \Sigma_{j=1 \rightarrow p} \delta_j y_{t-j} + \epsilon_{2t} \end{aligned}$$

- · 예를 들어 x가 y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검 정하기 위하여 y를 y의 과거값과 x의 과거값에 대한 회귀식 을 추정함.
- · 그리고 y를 y의 과거값에 대해서만 회귀식을 추정함.
- 여기서 오차항 ε_t는 상호독립적이고 iid(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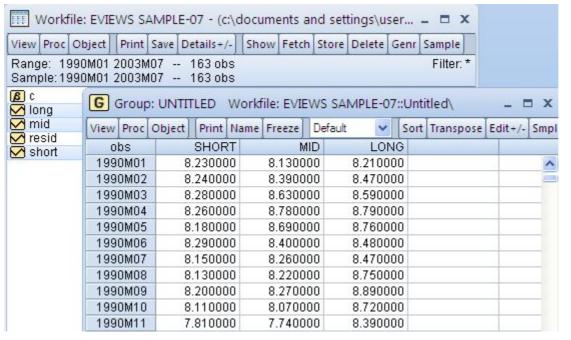


- ♣ Granger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위하여 Workfile을 불러옴.
 - · 다음은 eviews sample-07의 작업파일을 불러온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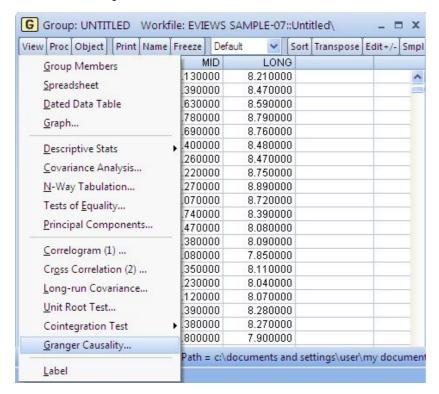
- ♣ Granger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 다음은 장·단기금리간 전이(transmission)에 대한 인과관계 검 정을 위해 미국의 단기금리(short), 중기금리(mid), 장기금리 (long)를 그룹(group)으로 생성한 작업파일임.



여기서 단기금리(short-term rate)는 미국의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 FFR), 중기금리 (intermediate-term rate)는 3년 만기 정부채권수 익률(government bond yields), 장기금리(long-term rate)는 10년 만기 정부채권수익률 (government bond vields)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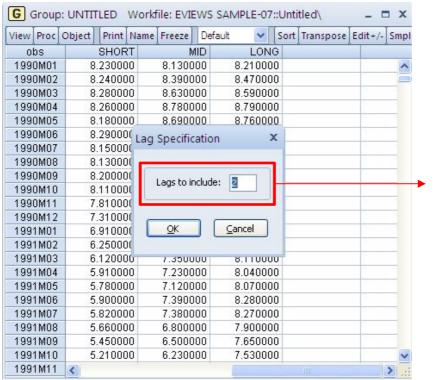


- ♣ Granger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 다음의 그림과 같이 그룹(group)을 생성한 후 View/Granger Causality를 클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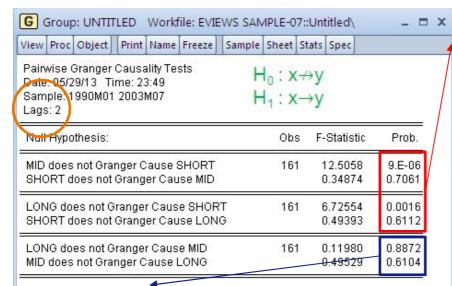
- ♣ Granger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 Granger Causality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후행식별(lag specification) 창이 활성화 됨.



→ 2차 후행을 위해 Lags to include에 2를 설정한 후 OK를 클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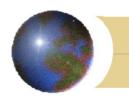
- ♣ Granger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 다음의 그림은 Granger 인과관계 검정결과를 나타냄(시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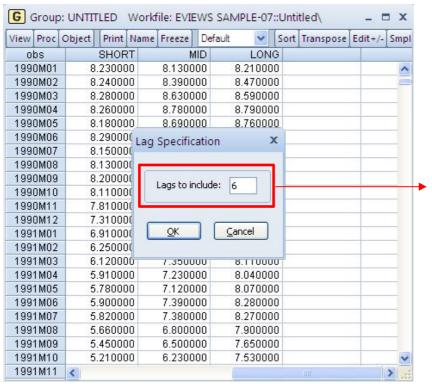
세 번째 항에서 "장기금리는 중기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함. 따라서 장기금리는 중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가 아님.

한편 "중기금리는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귀무 가설을 기각하지 못함. 따라서 중기금리는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가 아님. 첫 번째 항에서 "중기금리는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함. 따라서 중기금리는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임. 한편 "단기금리는 중기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함. 따라서 단기금리는 중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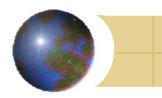
두 번째 항에서 "장기금리는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함. 따라서 장기금리는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임. 한편 "단기금리는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함. 따라서 단기금리는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가 아님.



- ♣ Granger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 이번에는 Granger Causality에서 후행식별(lag specification) 창에서 Lags to include에 6을 설정한 후 OK를 클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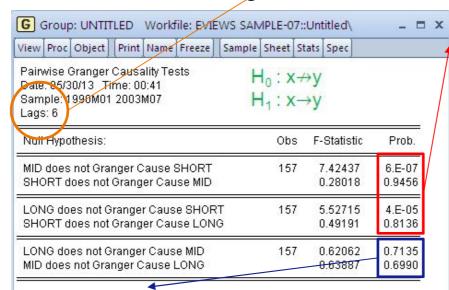


6차 후행을 위해 Lags to include에 6을 설정한 후 OK를 클릭함.



제10장 Granger 인과관계 검정 후행의 인과관계 검정결과도 2차 후행의 인과관계 검정결과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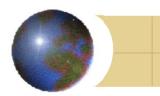
- ♣ Granger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 다음의 그림은 Granger 인과관계 검정결과를 나타냄(시차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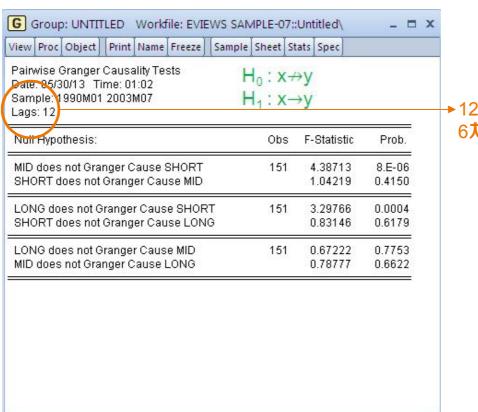
세 번째 항에서 "장기금리는 중기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함. 따라서 장기금리는 중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가 아님.

한편 "중기금리는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귀무 가설을 기각하지 못함. 따라서 중기금리는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가 아님. 첫 번째 항에서 "중기금리는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함. 따라서 중기금리는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임. 한편 "단기금리는 중기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함. 따라서 단기금리는 중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가 아님.

두 번째 항에서 "장기금리는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함. 따라서 장기금리는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임. 한편 "단기금리는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함. 따라서 단기금리는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가 아님.



- ♣ Granger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 다음의 그림은 Granger 인과관계 검정결과를 나타냄(시차 12).



→12차 후행의 인과관계 검정결과도 2차, 6차 후행의 인과관계 검정결과와 동일함.



- ♣ Granger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은 선택하는 후행(lags)의 수에 매우 민 감하므로 적합한 후행의 길이(lag lengths)를 선택하는 것이 바 람직함.
 - 예를 들어 월별 자료(monthly data)인 경우 적합한 후행의 항은 1, 4, 6, 12, 24 그리고 그 이상 후행의 항까지 범위를 선택할 수 있음.
 - · 분기별 자료(quarterly data)인 경우 적합한 후행의 항은 1, 4, 8, 12, 그리고 그 이상 후행의 항을 선택할 수 있음.
 - 연간 자료(yearly data)인 경우 후행의 항은 범위가 더 작아 져야 함.
 - · 이때 적합한 후행의 길이는 F-값의 유의한 변화에 의하여 결정됨.